

★ 중앙교회 구역 모임(17-26)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 삶 나누기

노인과 갈매기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면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 한 사람이 통에 가득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이 노인을 알아보고 으레 그 시간이 되면 해안에 모여서 노인이 주는 새우를 맛있게 받아먹습니다. 하지만 싱싱한 새우를 왜 갈매기들에게 매일 같이 먹이는지, 아무도 노인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노인은 어린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던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군들이 쏜 어뢰에 맞아서 그만 격침되고 말았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 남았는데, 햇빛은 뜨겁고 식량은 다 떨어져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하나 둘씩 죽어가 는 형편이었다. 나 역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더구나. 쫓으려고 했지만 영 도망도 가지 않고, 좌우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 남았던단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갈매기에게 감사한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고마웠던 그 때의 기억으로 인해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명심보감에 "몸에 한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베짜는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 끼 밥을 먹었거든 매양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본문/ 갈라디아서 3:1-14)

아브라함이 받은 이중 복은 칭의와 성령의 내주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나눔1. 바울은 왜 갈라디안들에게 어리석다고 합니까?(3:1,3)

나눔2. 성령과 능력은 무엇을 통해 받았습니까?(3:5)

나눔3.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3:6)

나눔4.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3:8-9,14)

3. 은혜나누기

1)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2)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3) 중보기도

(1) 대한민국을 이끄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게 하소서.

(2) 교회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과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중앙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충만을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4)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네팔 문금임 / 네팔코리아국제대학이 정부에 인정받도록 훈련원 본부와 아멘교회 건물의 건축,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33-6월 “111” 운동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